

국제항공 12개 노선 운수권 배분

- 18일 항공교통심의위 개최... 몽골노선 대폭 확대·지방공항 노선 다변화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5월 18일(목) 오후 개최된 항공교통심의위원회에서 12개 노선의 운수권을 7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하고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 - 청주(에어로K, 주3회)·무안(진에어, 주3회)·대구(티웨이 주3회)-울란바토르 운수권을 신규 배분하여 지방공항에서의 몽골노선을 대폭 확대하고,
 - 부산-울란바토르 노선도 기존 운항사(에어부산) 이외 주 3회를 추가 배분(제주항공)하여 경쟁체제가 마련되었다.
 - 또한, 기존 운항중인 인천-울란바토르(비수기:제주항공 주3회, 성수기:대한항공·아시아나·제주항공·티웨이 각 주1회) 운수권을 추가 배분했다.
- 그 밖에도, 무안-상하이(진에어 주6회), 청주-마닐라(에어로K, 주540석) 등의 운수권 배분으로 지역 주민의 국제선 접근성이 개선되고,
 - 한-러시아(에어로K, 주3회) 노선은 국내 LCC의 노선 다변화 등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 - 한편, 싱가포르 이원 5자유(대한항공 주3단위, 에어인천 주1단위), 한-필리핀(에어인천, 주100톤), 한-팔라우(에어인천, 주4회), 한-밀라노·로마·선택2개 지점(대한항공, 주3회) 등 화물 운수권도 배분했다. (☞ 참고2, 참고3)
-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“이번 운수권 배분으로, 최근 회복세인 국제선 운항에 한층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”면서,
 - “이번에 운수권을 배분한 노선을 조기에 취항하도록 항공사들을 독려할 계획이며, 앞으로도 항공회담을 통해 국제선 공급을 확대하여 항공이용객 편의를 증진하도록 노력하겠다”라고 덧붙였다.

담당 부서	항공정책관	책임자	과 장	김남균 (044-201-4207)
	국제항공과	담당자	사무관	신익승 (044-201-421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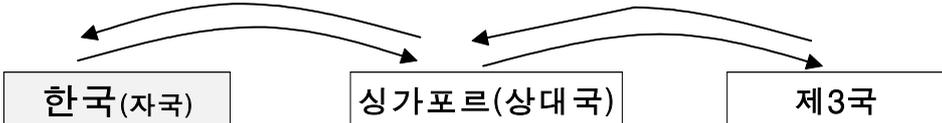
참고1

노선별 운수권 배분결과 총괄표

순 번	노선	배분받은 항공사	기존 운항
1	대구-울란바토르(여객)	티웨이 주 3회	신규
2	청주-울란바토르(여객)	에어로K 주 3회	"
3	무안-울란바토르(여객)	진에어 주 3회	"
4	부산-울란바토르(여객)	제주항공 주 3회	에어부산
5	(성수기)인천-울란바토르(여객)	대한항공·아시아나·제주항공· 티웨이 각 주1회	대한항공,아시아나, 제주항공, 티웨이
	(비수기)인천-울란바토르(여객)	제주항공 주 3회	대한항공, 아시아나
6	싱가포르 이원 5자유(여객/화물)	대한항공 주 3단위, 에어인천 주 1단위	티웨이, 에어인천
7	한/러시아(여객)	에어로K 주 3회	대한항공, 아시아나
8	한/밀라노·로마·선택2개 (3/4/5자유, 화물)	대한항공 주 3회	"
9	무안/상하이(여객)	진에어 주 6회	"
10	한/팔라우(화물)	에어인천 주 4회	"
11	한/필리핀(화물)	에어인천 주 100톤	대한항공
12	청주/마닐라(여객)	에어로K 주 540석	이스타

참고2

항공의 자유 설명자료

구 분	내 용
제1자유 (영공통과)	일국의 항공사가 타국의 영토 위를 무착륙으로 비행할 수 있는 권리
제2자유 (기술착륙)	운송이외의 급유, 정비와 같은 기술적 목적을 위해 상대국에 착륙할 수 있는 자유
제3자유	<p>자국 영토내에서 실은 여객과 화물을 상대국으로 운송할 수 있는 자유</p> 
제4자유	<p>상대국의 영토내에서 여객과 화물을 탑승하고 자국으로 운송할 수 있는 자유</p> 
제5자유	<p>자국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비행중에 상대국과 제3국간의 여객과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권리</p> 

참고3

국제선 운수권 운항 횟수 구분

- 국제항공 운수권 설정을 위한 국가 간 항공협정 시 통상 주당 운항 횟수(주 00회)를 기준으로 각국 항공사의 운항 횟수를 관리
- 다만, 예외적으로 **싱가포르**는 5자유 운수권의 운항 횟수를 항공기 기종별 공급력 지수인 '단위'(주 00단위)를 기준으로 관리하며,
 - * 1단위: B747(360~90석), 0.7단위: A330(270~90석), 0.4단위: B737, A320(160~80석) 등
 - 여객 운수권 중 **한국-마닐라** 노선은 '좌석수'(주 00석)으로 관리
 - 화물 운수권 중 **한국-필리핀**, **한국-홍콩** 노선은 '톤수'(주 00톤)로 관리